

상한론 의안 발표

20235507 박진호

환자 정보

30대 남성. 키 185cm 몸무게 88kg. 體強.

대학교 MT에 참여해 추운 바닥에서 잠을 자고 난 뒤
열이 38도까지 오르고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전신에 심한 몸살이 났다.

열이 너무 심해 앞이 제대로 안 보이고 두통이 심했다.

즉시 행사 장소에 준비되어 있던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 1g)를 복용했다.

집에 도착해서 잠을 자고 일어나니(4시간) 땀이 약간 나 있었다.

다시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 500mg)를 복용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니
열이 내려가고 몸살이 없어졌다.

인후통이 극심해져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침을 삼킬 때도 아프게 되었다.

望診

키와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다.

얼굴이 길고 코도 긴 편이며 얼굴색은 하얗다.

피부가 고밀하고 단단하며 목소리가 크다.

살과 근육이 모두 실하지만 일부 약한 부분도 있다.
몸놀림이 날래지 못하다.



問診

한열

더위를 많이 탄다.

여름철 휴대용 선풍기는 필수.

찬물을 좋아해 많이 마신다.

평상 시 얼굴에 핑크색으로 홍조.

음수

찬물을 좋아한다.

하루에 1리터 이상,
1.5리터 정도 마신다.

물도 많이 마시지만 음료도 많이
마신다.

問診

음식 소화

평상 시에 음식 소화가
아주 잘 된다.

살면서 체한 적이 거의
없다.

야식도 많이 먹는다.

소변

물을 많이 마시는 만큼
화장실도 자주 간다.

하루에 6~8회 정도

소변은 옅은 노란색
잔뇨감은 없다.

대변

하루에 1~2회
평상 시 특별한 이상은
없다.

가끔 컨디션이 좋지 않
을 때 大便溏하거나
熱泄이 있다.

問診

땀

평상 시에 땀이 많이
나는 편이다.
조금이라도 더우면 땀
이 줄줄 나서 상의를
다 적실 정도이다.

수면

최근 잠을 줄여가며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낙으로
살고 있다.
하루에 4시간~6시간 정
도 수면.
낮잠도 종종 잔다.

컨디션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머리가 맑지 못한 경우
가 많다.

問診

다빈도 증상

비염이 있지만 심한 편
은 아니다.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쉬는 경우가 많다.

가끔 몸살이 난다.

성격

뭐든 괜찮다고 말하
지만 실제로 원하는
게 있다면 강하게 밀
어붙인다.

조금 느리더라도 완
벽하게 하는 것을 중
요하게 생각한다.

설진

설체가 넓지 않고 뾰
족한 모양이다.

열이 심할 때 설첨부
가 빨간 상태였다.

切診

복진

복부는 전반적으로 윤기가 있고
크게 팽창되어 있다.

복벽은 탄탄하고 복직근이 경직
되어 있다.

맥진

체구에 비해서 맥이 洪하지 않다.
緊하면서 弦한 맥이 느껴진다.

浮沈중에서는 浮脈.

종합

키가 크고 덩치도 크다.

소화가 잘 된다.

복부가 탄탄하다.

전체적으로 근육이 발달했다.

목소리에 힘이 있고 성량이 좋다.

땀이 많이 난다.

차가운 물을 많이 마신다.

선풍기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

조금만 더워도 얼굴에 홍조가 생긴다.

=> 체력이 좋다. 體強

=> 热 위주의 사람이다.

변증 - 오장변증

추운 바닥에서 자고 난 다음
惡寒 發熱 身體疼痛이 생겼다.

熱이 왕성한 사람이기에
邪氣가 化熱했을 가능성이 높다.

해열제를 먹고 잠을 자니
열이 내려가고 咽喉痛만 남았다.



風熱犯肺證

변증 - 육경변증

기표가 고밀한 사람에게 寒邪가 침습
惡寒 發熱 身體疼痛이 있으며 煩躁증상

表寒하고 裏熱이 있었던 상황으로 본다.

현재는 표증 대부분이 사라지고 인후통
만 남았으므로 초기 단계에 대한 변증



表寒裏熱證

(大青龍湯證)

太陽表實證

(麻黃湯證)

변증 - 종합

체실한 者가 寒邪에 感.
正氣가 盛해 邪氣에
저항하는 힘이 극렬해
發熱, 身疼痛, 煩躁
증상이 나타났다.

해열제를 먹고 휴식
을 취해 열 증상,
신체통은 물러갔지만
인후통이 극심하다.

風熱犯肺證
風熱犯衛證

풍한사가 化熱해 風熱象이 두드러졌고
증상이 완화되면서 환자의 약점인 인후부에 국소화되었다.

처방 선정

風熱犯肺證

太陽表實證

風熱犯衛證

銀翹散

麻黃湯

銀翹散

처방선정

風熱犯肺證
風熱犯衛證

銀翹散

桑菊飲

荆芥連翹湯

麻黃湯
大青龍湯

은교산

辛涼平劑銀翹散方

連翹(一兩) 銀花(一兩) 苦桔梗(六錢) 薄荷(六錢) 竹葉(四錢)
生甘草(五錢) 芥穗(四錢) 淡豆豉(五錢) 牛蒡子(六錢)

효능 : 辛涼透表 宣肺泄熱 清熱奚毒

連翹와 金銀花는 발산하며 清熱解毒한다.

荊芥와 豆豉는 發汗하는 효과가 약간 있다.

桔梗, 甘草, 牛蒡子로 폐기를 선통하고 咽喉에 맺힌 사기를 푼다.

복약경과

-1일차 : 인후통(VAS 8)이 심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0일차 : 인후통(VAS 8)으로 인해 침을 삼키기 힘들다.

1일차 : 인후통이 아직 있지만 가장 아팠을 때보다 통증이 30% 정도 감소.

초기 인후통 : VAS 8, 복용 후에는 VAS 5~6 정도

2일차 : 인후의 붓기와 통증이 감소해서 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3일차 : 인후의 붓기가 감소해서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면 통증이 거의 없어졌다.

수면 시간이 4시간으로 줄어서 인후가 아프지는 않지만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4일차 : 인후부 붓기와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다.

목소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소리가 갈라지는 현상이 남아있다.

5일차 : 인후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아 복약 중단.

고찰 및 소감

질병 초기에 대청룡탕/마황탕을 사용했다면 어땠을까?
상국음은 어땠을까?

비대면으로 환자의 증상을 들으며 변증을 하다보니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다.

환자가 해열제를 사용하는 등 서양의학적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환자 상태가 바뀌어도 한의학적으로 이를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유익했다.

고찰 및 소감

환자가 너무 체력도 좋고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한론 소음병 인통에 사용하는 처방 (특히 감길탕)을 사용했다면 어떤 효과가 났을지 궁금하다.

너무 상한론과 온병학 처방에 집중했던 것 같다.

패독산 계열 약물 (인삼패독산)을 고려했다면 달라졌을 것 같다.

환자가 아플 때는 평소와 다른 생활 습관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평소 물을 많이 마시다가 목이 아파서 못

또한 환자의 생활 습관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찰 및 소감

환자가 아플 때는 평소와 다른 생활 습관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 평소 물을 많이 마시다가 목이 아파서 못 마시면 건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목소리가 안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 열에 의해서 진액이 손상 + 인후부 손상 + 평소보다 물을 못 마셔서 진액 부족, 수면 부족으로 음액 보충 불가. 여러 요인이 합쳐졌을 것.

환자의 생활 습관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